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불기 2554년 연등회가 지난 16일 서울 동국대, 종로, 우정국로에서 봉행됐다. 동국대에서 조계사까지 거리에는 오색연등이 물결을 이뤘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30만명 동참...서울 종로거리 ‘연등바다’

16일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문화마당·제등행렬 펼쳐져

화보 41·46·47면

서울 시내가 연등(燃燈) 바다를 이루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난 16일 개최한 연등회(燃燈會)가 시민과 불자 3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16일 오후6시30분 동국대 운동장을 출발한 불자 10만여 명은 사천왕, 코끼리, 뽀로로(만화주인공) 등 각종 장엄물을 앞세우고 종로 일대를 거쳐 오후10시경 조계사 앞에 도착했다. 제등행렬이 지나가는 서울 시내 종로 일대에는 시민과 외국인 등이 지켜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조계사에 도착한 불자들은 시민과 함께 종각사 거리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화향한 마당 행사로 연등회를 마무리 했다.

이에 앞서 오후4시부터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 식전행사와 본행사에는 사부대중 5만여 명이 참여했다. 불자 방송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는 여름 날씨를 연상케 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잔치마당이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연등법회에는 주요 종단 지도부를 비롯해 중국·일본·미얀마·몽골·스리랑카 등에서 온 불교 대표단도 참가해 연등축제가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참석해 불심(佛心)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봉행된 연등법회에서 불축위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연등축제는 과거와 소통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의 세상과 화합하는 축제이기도 하다”면서 “은 세상을 밝은 빛으로 물들이는 중중무진의 빛 구슬로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연등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남북공동발원문’을 낭독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기원했다.

장엄등 심사 결과 한마음선원 최우수상

연등법회에 앞서 불축위원회는 장엄등 경연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한마음선원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능인선원과 도선사, 장려상은 진관사, 선학원, 수국사, 특선은 관음종, 승가사, 봉은사, 화계사가 받았다. 시상은 불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했다.

한편 불축위원장 자승스님은 연등법회가 열리는 동국대로 출발하기에 앞서 1시간 정도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문화마당의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 자승스님은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한 외국인 연등 만들기가 진

행되는 부스를 찾아 외국인들과 직접 연등을 만들며 “오늘 연등을 만드는 인연공덕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불교청년회가 마련한 ‘진일인명사 전 보급운동’ 부스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좋은벗들, 봉은사 문화사업단, 사회복지재단, 불광출판사,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몽골불교, 캄보디아불교, 한마음선원 공연장 등 10여 곳을 방문했다. 스님은 불교문화마당의 행사지원에 개설했던 임시파출소를 방문해 감사편지 전달과 소정의 정회문 등로서 정보관 등 경찰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불교문화마당에는 연인원 10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성수 · 장영섭 · 엄태규 기자

2554 BUDDHA'S BIRTHDAY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종 정 도 립 법 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 무 원 장	자 승
중앙총회의장	보 선	교 육 원 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 교 원 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불축법어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未完)의 여래(如來)로 태어나서 해탈(解脫)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무생(無生)한 삶은 자재(自在)하여 오고 감이 없으나 법신(法身)은 불멸(不滅)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찾으면 은현자재(隱現自在)하여 엿볼 수가 없고 모든 곳에 응하나 텅 비어 공적(空寂)합니다. 미오(迷悟)의 근기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앞에 본체의 기용(機用)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무명(無明) 속에 부처를 빚어 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煩惱) 가운데 열매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으니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法身)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구축한 미륵(彌勒)의 현신입니다.



도림법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본래는 범부(凡夫)도 성인(聖人)도 아니고 이들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열매에서 벗어나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불기 2554년 사월 초파일입니다.

불축사

천등만화가 경하합니다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5월입니다. 낮에는 신록이 산하(山河)를 장엄(莊嚴)하고, 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 천등만화(千燈萬花)가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로움으로 경하(慶賀)합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지혜구슬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흙탕물의 진흙 속에서 부용(芙蓉)이 피어나듯 심전(心田)의 메마름 속에서도 자비의 감로(甘露)는 세상의 논밭까지 적셔 줍니다.

다름의 천태만상 속에서 같은 공유면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백가쟁명 속에서 원융화쟁의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잎처럼 발아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은 공생(共生)을 위한 또 다른 지혜입니다. 사통팔달 소통으로 막힌 곳이 없으니 남녀노소와 내외좌우(內外左右)가 언제나 화합의 광장에서 춤을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춥니다. 나눔의 강물이 사해(四海)로 흐르고 흘러 소외된 이웃이 없으니 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모두 일가(一家)를 이룹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주(共住)를 위하여 등불을 대강(大江)에 걸고 국민을 받들 줄 아는 공복(公僕)을 향한 등불을 밝히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삼사(三笑)등불의 심지를 돈우어 재삼(재삼)의 화합을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 28일 동국대에서 세미나

철학적 관점에서 조계종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학술세미나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불기 2554년 불축세미나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를 오는 28일 오전 9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각스님의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이 ‘시간과 실제-청송 고형근의 존재론’을, 신지영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가 ‘선(禪)과 기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가 ‘선(禪), 존재론적 평면화와 평등의 정치학’을, 박인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공통’을,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이 ‘알지 못함(不知), 간화의 지렛대:간화선에서 알고 알지 못함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간화선의 철학적 의의에 대해 규명한다.

장영섭 기자

부처님오신날 불축 특집 52면 발행